한중일불교교류회의, 내년 10월 한국서 개최

종단협, 12월 11일 제3차 이사회
내년도 예산안·사업계획 등 공유
신년하례법회, 1월 27일 조계사서
회원 의무 미이행 '일승종'은 제명
한일불교 이사장에 상진 스님 연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2월 11일 서울 조계사불교대학 2층 회의실에서 '불기 2569(2025)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한중일 불교계가 세계 평화와 불교 발전을 발원하며 1995년부터 이어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제26차 대회가 내년 10월 한국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12월 11일 서울 조계사불교대학 2층 회의실에서 '불기 2569(2025)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대회 진행 계획을 논의했다.

회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는 불교계의 시스템과 협력구조가 필요하다. 종단 간 협력과 공동의 실천이 확고해질 때 한국불교는 시대가 요구하는 신뢰받는 종교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한국에서 열릴 제26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의 세부 일정과 주제 등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삼국 예비회의에서 결정된다. 예비회의에는 종단협 상임이사로 구성된 교류위원단이 참석한다.

부속사업으로 중국수행단의 한국불교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이 사업은 한중 인적교류의 내실을 다지는 자리로, 중국불교협회 소속 스님 40여 명이 방한해 한국 사찰의 전통 수행문화를 체험하고 지역 문화 현장을 탐방한다. 이를 통해 양국 불교계의 우호를 증진하고 수행·문화 교류의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사회에서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9억 7812만원으로 편성하고 주요 사업 등도 확정했다. 종단협 신년하례법회는 1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되며, 종단협 소속 스님들과 사회 각 분야 불교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해 불교 발전과 사회 안녕을 기원한다.

종단간 화합 강화와 종교계 교류 증진을 위한 제12회 한국불교지도자 해외성지순례는 내년 6월 호주로 예정됐다. 일본불교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제동원희생자 유골봉환사업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종단협은 이사종단인 대한불교일승종에 대한 제명도 의결했다. 일승종은 올해 3월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회비 납부, 연합법회 참가, 총회·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등 회원 종단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한 차례 강등된 바 있다.

이에 종단협은 12월 이사회 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끝내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어 정관 제2장 8조에 따른 회원 의무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명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관 전반의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고,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조항을 수정하는 정관 개정 작업도 마무리했다. 또 각 종단 인사 변화에 따라 상임이사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 사회부장 진성 스님, 천태종 사회부장 보광 스님, 진각종 총무부장 원상정사, 태고종 문화부장 월타 스님으로 변경됐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사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가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임원 변경 및 입회·탈퇴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불기2570년도 사업계획 심의의 건 △불기2570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의 건 등을 다뤘다. 현재 임기가 2026년 2월 만료되는 이사장직은 상진 스님이 연임하며, 감사에는 보문종 총무부장 자문스님과 방정자 한일불교 여성부 총무가 선출됐다. 이사장과 감사 임기는 2년이다.

범어사, 청사 복구 등에 1억원 쾌척


범어사가 기념관 복구·화쟁위 발전에 각 5000만원씩을 전달했다.



주석 스님(오른쪽)이 중앙종무기관 컴퓨터 150대를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지원했다.

12월 11일, 진우 스님에
주석 스님도 12월 9일
청사 컴퓨터 150대 지원

종단의 원활한 운영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범어사 스님들이 정성을 보탰다.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과 주지 정오 스님 등은 12월 11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복구기금에 5000만원, 화쟁위원회 발전기금에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화쟁위원장 정만 스님, 승가대학장 도산 스님, 종회의원 석산·도림·허허 스님 등 범어사 대중 스님들이 함께했다.

진우 스님은 "범어사 덕분에 더 좋은 환경에서 종무에 집중하고, 종도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범어사 방장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에 정여 스님은 "정만 스님이 화쟁위원장을 맡아 화쟁 정신을 기반으로 사회 화합을 이끌어가길 바란다"며 "화쟁위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고자 기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오 스님도 "청사 복구가 잘 마무리되는 중이라 다행이다. 범어사에서도 종단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도 12월 9일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컴퓨터 150대를 전달했다.

주석 스님은 "청사 복구에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될지 고민하다가, 공사가 마무리돼 곧 입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컴퓨터 지원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부산 지역 포교에도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을 텐데, 총무원 청사 복구까지 도움을 주셔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김내영 기자 · 송정인 수습기자

태고종 제24차 법계고시 품서식 봉행

12월 9일, 서울 법륜사서
종사, 종덕 등 81명 품서
바른 신행·청정 계행 서원


12월 9일 열린 태고종 법계고시 품서식에서 종사 법계를 받은 스님들이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2월 9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불이성 법륜사 대웅보전에서 제24차 법계고시 품서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계 품서식에서는 △진화 스님(총무원 규정부장) 등 16명이 종사 △법진 스님(총무원 홍보부장) 등 17명이 종덕 △정무 스님 등 21명이 대덕 △진산 스님 등 22명이 중덕 △혜수 스님 등 5명이 선덕 법계를 품서 받았다.

법계 품서자 총인원은 81명으로 이들은 지난 10월 22일 진행된 법계고시를 통과해 이날 법계증을 받았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법계의 품서는 바른 신행과 청정한 계행을 통해 종풍을 선양하고 승가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서원을 새롭게 하는 법석"이라며 "앞으로도 바른 신행과 승가의 위의를 지키며 종단이 정법의 길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원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고시위원장 휴완 스님은 인사말에서 "온 산하대지에 비가 내리면 척박한 땅은 금방 메말라 가지만 밭을 잘 일군 비옥한 터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서 "명품 땅을 일구듯 끊임없는 수행정진으로 굳건히 자라잡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원장 재홍 스님은 축사를 통해 "종단의 법계 질서가 원칙을 지키며 안정화 돼가고 있다. 향후 교육을 통한 종단의 위계가 필요하다"며 "여러 분들의 협조 속에 하루가 다르게 종단의 위상이 올라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장 능해 스님도 "전법 포교를 열심히 정진하는 것도 스스로의 수행 근기를 높이는 중요한 방편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법계를 품서한 모든 구성원들이 전법 포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진우 스님 "어릴 때부터 인성 교육 해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만나
"마음이 괴로우면 불행"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경쟁 위주의 현 교육 현실을 지적하며 인성과 마음을 키우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12월 10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교육의 본질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진우 스님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괴롭다면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며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교육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정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방안을 깊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려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교육정책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교육부는 당면한 교육 현안 해결은 물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호흡을 잘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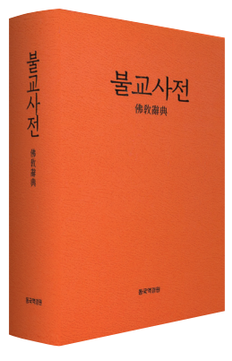
부처님 법 전하는 '전법총서' 시리즈



전법총서 NO.1
부처님의 생애, 붓다 · The Buddha
위대한 붓다의 삶과 가르침 그 속으로!
윤재웅·박기련 | 128×187 | 32,000원



전법총서 NO.2
불교성전
법정스님이 엄선한 팔만사천 부처님 말씀이 이 한 권에!
불교성전편찬위원회 | 128×187 | 36,000원



전법총서 NO.3
불교사전
불교공부의 든든한 길라잡이!
동국대 건학위원회 불교사전편찬위원회
128×187 | 89,000원

'전법총서'란?
동국대학교출판문화원이 기획·출간하고 있는 '전법총서'는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불서(佛書) 시리즈이다. 각 총서의 표지는 불기(佛旗)의 5색을 상징하며, 청·황·주황색에 이어 백·적색의 총서로 불교학개론 등이 출간될 예정이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전화 02-2264-4714 팩스 02-2268-7851 이메일 abook@jeongjincorp.com